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4월 23일(주일) 제1145호

오늘은 '장애인주일'

배려와 공감을 더하는 '장애인주일'

특순, 전시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기념행사
온누리교회 장애인부서 섬길 헌신된 교사도 모집



오늘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견은 빼고, 배려와 공감을 더하면서 “좋은 나, 더 좋은 너, 참 좋은 우리”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날이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교회 곳곳에서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다채로운 특순을 선보인다. 1부 예배 사랑채버, 2부 예배 온사랑합창단, 3부 예배 사

랑부 OMW(사랑부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 4부 예배 서빙고 사랑부 교사들이 특순을 선보인다. 신관 커피숍에서는 장애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이천만광장에서는 모자이크 플러스(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사랑부 주중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들을 판매한다. 더 치커피와 디퓨저, 예코백, 펜던트, 미

니화분, 머그컵 등이 판매된다.

양재 사랑부는 2, 3부 예배에서 밤벨 연주 특순을 선보인다. 부천은 2, 3, 4부 예배에서 사랑부 지체가 특별 간증을 하고, 자선장과 그림전시회도 열린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이어진다. 강동 사랑부는 1부 예배에서 특순을 한다.

한편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담당 박철웅 목사)에서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4-5면>. ‘사랑, 배려, 친절, 관심’이 그 주제다.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라는 바른 명칭 사용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엘리

베이터에서 장애인 먼저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주기,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목회지원실로 데려다 주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부서를 섬길 교사도 모집하고 있다. 서빙고 본관 1층 로비와 이천만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26일 개봉

전국 극장 어디서나 관람 가능 ...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개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6일 개봉하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상영시간 및 장소는 24일 이후 주요 영화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객 수에 따라 상영관과 상영회차가 정해지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는 것이 매우 좋다.

공동체나 사역팀 모임, 순모임 등을 영화관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단체관람 및 대관관람을 신청하면 가격도 1~2천원 할인받을 수 있다.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대관관람은 100명 이상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관관람을 신청하면 영화상영 일정과 별개로 원하는 극장과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 개봉 이전에도 대관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대관관람은 가급적이면 국내 온누리교회 인근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작품성과 신앙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4월 3일부터 실시된 국내 시사회에 참가한 교계와 성도들이 호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시사회에는 무려 900명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희재 광주지점장은 “이 영화를 통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았다”면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관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정숙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은 “예수님

이 어떻게 약한 자를 돌보는지 알 수 있는 영화”라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말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개막작으로도 선정됐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4월 24일 오후 5시 필름포럼 1관에 상영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단체관람 문의:

010-8895-4696

CGV 1544-1122

LOTTE 1544 8855

MEGABOX 1544 0700



우리는 왜 러브소나타에 가야 하는가



김하중 장로
(前 주중대사, 러브소나타 교회세미나 주강사)

한국과 일본
이 수교를 한
것이 1965년 6
월이었으니 이
제 52년이 되
어 간다. 그러
나 양국 간에
는 아직도 과
거사 문제, 위
안부 문제 그

리고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 과거에는 아무리 양국 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4년 넘게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중단되었다. 그러다보니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러브소나타의 열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교회는 2007년부터故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일본에 사랑을 전하는 ‘러브소나타’ 문화전도집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23개 지역에서 25회에 걸쳐 러브소나타를 개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2천 개가 넘는 교회와 66,000 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15,0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결신자가 나왔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계의 어느 교회도 시도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역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한 교회가 오직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난 10년 간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러브소나타는 긴장된 한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대

표적인 교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러브소나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공로가 컸다.

일본 복음화와 한국의 역할

일본이 1854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으면서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을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을 품고 일본으로 향했다. 그러나 16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일본 전 인구의 0.4%)에 불과해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북한과 미얀마와 더불어 일본을 꼽고 있을 정도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일본의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일본의 복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나라의 하나가 바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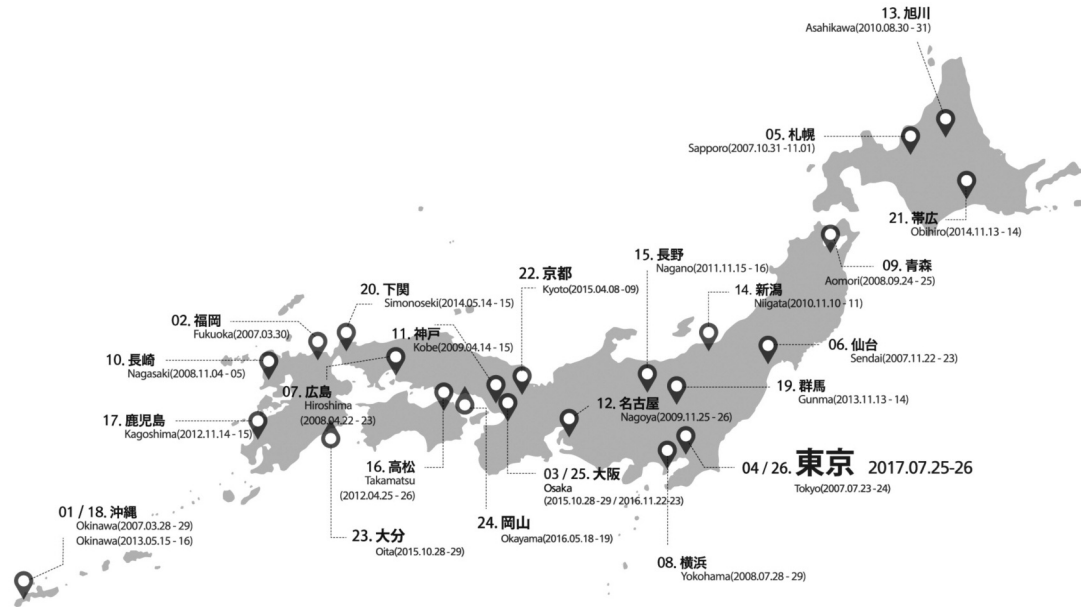
우리는 믿음의 빛진 자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한일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가 지난 10년 간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힘써 온 이유이다.

러브소나타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온누리교회는 지난 10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7월 25일과 26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러브소나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브소나타는 항상 양국 관계의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픔과 달리 영적으로 긴장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이 된다. 그렇다보니 러브소나타에 참가해도 재미있는 관광이나 온전도 하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맛보지 못해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러브소나타의 성공을 위해 전심으로 봉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일본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아가 양국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리고 러브소나타에 참석해서 헌신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



역대 실행위원장 감사메시지

러브소나타 덕분에

센다이 지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곳입니다. 당시 다수의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을 섬겼고, 여러 교단과 교파의 교회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나고 반년 후에는 미야기 지역 선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지금도 지진 피해자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2007년 러브소나타를 통해 구축했던 센다이 교회 간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역 교회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일본 각지에서 러브소나타가 계속 열리기를 바랍니다.

/ 오토모 유키카즈 목사(센다이 실행위원장)

감동과 눈물 그리고 사랑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러브소나타 아오모리 행사는 2008년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1,800여명의 회중에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 목사님은 결신한 사람들을 강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지속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사사키 아카마사 목사(아오모리 실행위원장)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지난 10년 동안 러브소나타를 25회 개최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러브소나타 일본 실행위원들의 사랑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전역에서 훌륭하고 멋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리가 더욱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브소나타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거둔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영적 전쟁에서도 러브소나타를 통해 복음과 선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응원하겠습니다.

/ 하야카와 카즈오 목사(교토 실행위원장)

그때 그 흥분과 감격

오이타는 23번째로 러브소나타가 열린 곳입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가 시작되고 “2천석 자리가 꽉 차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몇 백 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흥분과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는 오이타 지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통로에 앉아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보던 저는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 10주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 히로타 가즈마사 목사(오이타 실행위원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가져온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에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부활을 전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자격조건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부활, 또 다른 자연세계

부활은 죽음에서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도 아닙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빠진 기독교를 원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기사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신화라고 여깁니다. 만들어지고 조작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자연세계만이 실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자연만이 진정한 실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견이요, 선입견이요, 철학적인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연 너머의 자연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체계화되고, 다양화된 실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외에 또 다른 자연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차원에서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에서는 3차원의 입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만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4차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차원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경험하는 세계가 실재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만이 실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는 그 세계가 전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웅니까.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

험하지 못한 세상이 두렵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충격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만 아이의 출생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듯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에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문학가 C.S.루이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자연 외에 또 다른 자연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곳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거하는 곳인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자연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영혼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또 다른 자연세계입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자연이 약속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새로운 자연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면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걸으실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지만 우리와 다른 몸의 상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혔으나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분은 유령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연상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요란스럽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빛이 비추듯이 매우 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부활이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여러 가지 모순된 기록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반가워하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믿기 어려워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의심했고, 불신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두려워서 울듯이 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가 ‘글로바’인 것은 알겠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글로바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그룹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해보이고 부각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과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과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육신을 가지셨기에 피곤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병든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온전해 집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15-17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눈은 있지만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7절 마지막에 ‘슬픈 기색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눈을 가립니다. 슬픔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슬픔은 내가 있는 상황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지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인데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왜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고, 그들의 희망이요, 기대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그토록 인자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슬펐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라기보다 절망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분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지 벌써 3일째 됐는데”(21절).

여기서 구속은 죄에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구속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불신에서 나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25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 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디 믿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었기 때문에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무지에서 비롯된 슬픔이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장애인 인식 개선

세계가 울어버린 순수한 사랑의 감동!

2002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노미네이션
2002년 OSCA Award를 전미 아역상 석권
전미 청소년영화상 수상
일본 10주간 240만명 관람 장기록



▲ 영화 'I am Sam'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49만 406명이다.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인구 100명 중 다섯 명이 장애인이라는 소리다. 우리는 장애인들과 아주 가까이 살고 있다. 그들은 아주 소중한 이웃들이다. 장애인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불쌍하게 여기거나, 우월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인격체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 일련의 행위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장애인사역본부 박철웅 목사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돕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아내의 생일 선물로 공구박스를 준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흔히 장애우란 말이 정서상 훨씬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장애우라는 말 자체에 장애인을 소통 가능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들을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소통이 가능한 동등한 인격체로 보아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다. ‘I am Sam’이라는

영화다. 이 영화는 지적장애인으로 7살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존 펜 주연)과 그의 어린 딸 루시의 스토리다.

이 영화는 버스정류장 옆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샘이 황급히 가게를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것이 샘과 레베카 사이에서 태어난 딸 루시와 첫 대면이다. 레베카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샘과 딸을 두고 사라져 버린다. 혼자 남겨진 샘은 좋아하는 가수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온 루시 다이아몬드를 딸의 이름으로 짓고 둘만의 생활을 시작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물론 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루시가 7살이 되자 아빠의 지능을 추월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빼먹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관에서 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샘은 아빠로서 양육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루시는 시설로 옮겨진다. 주 2회 면회만 허락받는다.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행복한 날들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진 샘은 법정에서 싸워 루시를 되찾을 결심을 굳히고 엘리트 변호사 리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리타는 바쁘게 계단을 오르며 샘에게 툭 내뱉듯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장애라고 부르기 보다는... 불능이란 말이 좋을까... 아니면 박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 말을 들은 샘이 더듬거리며 대답한다.

“샘. 그냥 샘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불능자도 아니고 정신박약아도 아니니까. 그냥, 그냥 나는 샘일 뿐이니까 그렇게 불러주세요. 내가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나이니까요.”

샘이 말한 이 대사가 이 영화의 메시지다. 이 대사에서 영화의 제목(I am Sam)이 탄생했다. 나는 그냥 나일뿐이니까 그렇게 불러달라는 샘의 말은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

“나는 그냥 나일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바라보고, 소통하기



▲ 서빙고 예수사랑부 남산한옥마을 나들이.

는 것이다. 조금은 특별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선입관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달라는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다.

배려의 대상 뛰어 넘어 소통의 대상으로

이 메시지는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얼마 전 ‘장애인과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사랑부 교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때 ‘칼리’라는 실존 인물을 알게 되었다.

칼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자폐장에 판정을 받았다. 칼리는 발달장애인으로 걷고 앉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른 자폐아들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칼리가 3살 되던 해부터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칼리를 독려했다. 칼리는 끊임없이 몸을 흔들고, 팔을 휘저으며, 갑자기 짜증을 내는 등 여느 발달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수년 동안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진전이 없어보였다.

칼리가 11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더니 천천히 한 글자씩 자판을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hurt’ 다음에는 ‘help’라고 치더니 소파 뒤로 가서 구토를 했다. 구토하기 전에 통증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칼리의 치료사들은 칼리가 무엇을 타이핑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교육 시켰고, 몇 개월 후 칼리는 다른 사람과 타이핑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칼리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리가 한 글자씩 타이핑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유창한 언어구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난 칼리니까요. 나는 자폐증이 있어요. 하지만 자폐증이 곧 나인 것은 아니에요. 판단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나는 귀엽고 재미있는 애예요.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해요.”

칼리는 못말처럼 쏟아져 나오는 글자들을 통해 자신이 자주 보였던 바닥에 머리를 짚는 거친 행동들의 비밀도 말해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서요. 멈출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알지만 그건 마치 나의 뇌와 엄청 힘들게 싸워야 하는 상황과 같아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손을 휘젓고 몸을 흔드는 이유도 말해줬다.

“우리의 뇌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소리와 대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수백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칼리는 더 행복하고 독립적인 아이가 되었다. 소설도 쓰고 정기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도 운영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장애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숨어있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길을 찾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주일이 다가왔다. 장애인들을 배려의 대상을 넘어서 소통의 대상으로 대해준다면, 그래서 선입관 없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준다면 가장 멋진 선물 이 될 것이다.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양재사랑부 세례식

“진짜 고백, 진짜 예배, 진짜 사랑”

어느 장애인의 눈물겨운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양을 부르는 정범준 학생.



▲ 지난 주일 양재 사랑부 세례식 현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고백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또 있겠나만 장애인에게는 더욱 특별하다. 신앙이 있어도 한평생 신앙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부 세례식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벌어진다. 지난 주일(16일) 양재 사랑부 소속 남기영, 장현우, 장현지 학생이 입교했고, 류지수, 박서영, 박종하, 이동민, 이홍승, 정도담, 정범준 학생이 세례를 받았다. 스스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말이다. 누군가는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진짜 고백, 진짜 예배, 진짜 사랑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발달장애인 정범준 학생(고3)의 신앙고백이 울려 퍼졌다.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고, 율동으로 표현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범준 학생의 어머니 이진희 성도의 눈가가 축축이 젖어 있었다.

“범준이가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입교 및 세례 문답과 물세례식도 큰 감동이 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

까. 아마 그 부모들조차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온 가족이 장애인 아동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 정범준 학생의 어머니 이진희 성도도 그랬다.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범준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늘 생각했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어렵게 그 말을 꺼내는 이진희 성도의 눈가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견디고 견뎌왔던 아픔을 토해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실 리 없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모두 양재 사랑부 덕분이에요. 양재 사랑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범준이에게 양재 사랑부를 선물로 주셨어요.”

정범준 학생이 처음부터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정범준 학생이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만해도 상황이 심각했다. 언어적인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 울고 떼쓰는 것은 기본이었다. 어디 이뿐이라. 고개만 돌리면 사라지는 탓에 정범준 학생을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그렇게 힘들던 정범준 학생이 양재 사랑부에 온지 3~4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교사들의 사랑 덕분이다.

“양재 사랑부 선생님들이 범준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칭찬해주셨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베풀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이 범준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에 평안

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회복은 범준이만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 이진희 성도는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됐다.

“어디를 가도 범준이가 늘 힘든 아이, 자폐가 심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재 사랑부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범준이도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덕분에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제 자존감이 회복되었죠.”

이진희 성도가 양재 사랑부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범준이가 양재 사랑부와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매주 주일만 되면 자신이 직접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정도예요. 현금도 미리 준비해두고요. 여름캠프 갔다 오면 그 다음 날부터 겨울 캠프를 기다리고요(웃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양재 사랑부에서 회복된 가정이 또 있다. 남기영 형제와 어머니 강성희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강성희 성도는 남기영 형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양재 온누리교회에 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기영 형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전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사춘기가 찾아온 것이다.

“기영이가 예배드릴 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성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더 이상 아이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양재 사랑부를 찾았다. 그런데 양재 사랑부로 가는 강성희 성도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 때문에 장애인 부서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 사랑부에 가봤는데 예배를 드리

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 위주로 돌봐주는 수준이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장애인 아동들이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걱정을 한가득 안고 양재 사랑부에 왔는데 처음 방문한 날부터 깜짝 놀랐다. 전에 경험한 장애인 부서와 차원이 달랐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찬양부터 기도, 말씀, 공과공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예배를 찾은 것도 감사한데 진짜 사랑도 받았다.

“기영이가 예배시간에 소리 지르면 선생님께서 기영이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기영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기영이의 행동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제목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도 하시고요.”

사랑부 교사들의 그 귀한 사랑에 힘입어 남기영 형제도 회복되었다. 더 이상 예배시간에 소리 지르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 남기영 형제는 양재 사랑부와 사랑에 빠졌다.

“교회 가지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때는 늦잠 자려고 하는데 주일에 교회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요. 예전에는 찬양을 알아도 부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랑부에서 제일 크게 찬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성희 성도는 아들 기영이가 입교하는 현장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했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영이가 입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문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처럼 기영이가 입교하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영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그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전도집회 ‘만남’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전도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 19일 여성전도집회 ‘만남’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했다.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선물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언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직장동료 등 전도대상자 110명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렌다.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를 만난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이웃을 만난다. 교회에서는 동역자를 만난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도 꾸린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예수를 만나면 진리를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천하기까지 몹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여성전도집회 ‘만남’을 개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성도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장(場)을 마련한 것이다.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대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전도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오성옥 집사도 같은 마음이다. 오 집사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손을 잡고 전도집회에 왔다. 두 어머니께 꼭 예수를 전하고 싶는데 적절한

방법과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고만 있었다. 오 집사에게 여성전도집회 ‘만남’이 열린다는 소식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다. 딸이자 며느리인 오 집사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두 어머니들도 이 시간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소감이 어떠한지는 질문에 몇째 웃어 보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전도집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이내 몰입해졌다.

대전 여성사역팀은 교회에 처음 나온 전도대상자들이 어색해 할 것을 고려해서 눈높이를 맞췄다. 처음에는 찬양보다 대중가요를 불렀다. 전도대상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한 것 같아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다섯 자매 중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 사는 것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 전전긍긍하던 고교시절 동창들, 둘도 없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만으로도 축복이자 열매였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랑

가수 노사연 집사가 무대에 올랐다. 안 그래도 훈훈한 전도집회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명인사의 간증과 찬양은 인기 만점이었다. 임영순 권사가 초청한 김미례씨와 배순희씨는 가수 노사연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왔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수 노사연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그녀들에게 이보다 강력한 전도메시지가 또 있을까.

“여자, 아내, 엄마로 살다 지치고 방황할 때, 활짝 만개한 꽃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꽃잎이 저버린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가수 노사연 집사의 간증과 찬양으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대전 온누리교회 담임 박태영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해주시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만나는 방법도 소개했다.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고백하십시오.”

곧바로 결신의 시간이 이어졌다. 초청자들은 전도대상자들에게 손수 쓴 편지를 읽어줬다.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은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 전도대상자 110명 중에 3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11명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오성옥 집사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유경 성도의 아버지 최재범 어르신도 눈물을 보이셨다. “잊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준 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가수 노사연 보려고 전도집회에 참석했던 배순희씨도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데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님 전상서

사랑하는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께 톨툴거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리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어머님이 건강하여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어머님이 행복하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고, 힘들면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어머님이 웃으시면 집안이 꽃밭같이 화사하고, 어머님이 우울해하시면 집안이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같아요. 늘 행복하고 늘 웃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도울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지내세요. 저는 우리 가정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길 것을 믿어요. 늘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님을 본받고 싶은 며느리가 편지 올립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며느리 오성옥 올림

큰언니와 둘째 언니에게

큰언니, 형부가 하늘나라로 간지 14년째네. 너무나 막막해하며 울기만 했던 언니가 생각나. 학생이었던 정연이와 유미가 어느덧 가정을 세우고 멋지게 사는 것을 보니 언니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생각하게 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기도 하고.

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 하고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언니가 참 좋고 고마워. 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언니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언제나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둘째 언니, 내가 컸는데도 ‘우리 막내’라고 부르며 늘 엄마처럼 챙겨준 언니. 봉국씨와 다르면 문밖에서 안쓰러워 머뭇거리며 용돈을 쥐어 주던 형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와 봉국씨는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딜 수 있었어. 형부와 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언니 더욱 건강하기를 바라.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나 사랑하고 오늘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언니.

/ 막내 숙경이가

와이미션(Why Mission?) 개설 15주년

선교가 막막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론부터 실제까지 살아있는 선교 배운다



와이미션 훈련생들이 안산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와이미션(Why Mission?)’이 올해로 개설 15주년을 맞이했다. 와이미션은 선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훈련프로그램이다. 선교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다. 2013년부터 온누리교회 임직자 필수 과정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무려 7천여 명의 성도들이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했다. 더 큰 비상을 꿈꾸고 있는 와이미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 2위(2010년 기준)까지 부상할 정도로 선교열정이 대단하다. 온누리교회도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에 열심이다. 교회창립 때부터 선교에 집중해오고 있다. 단일교회가 2천/1만 비전을 선포할 정도니 선교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2천/1만 비전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의미다.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

가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가 막막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

한국컴퓨터선교회가 전국 남녀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교회 성도의 선교의식구조 조사’에 따르면 “방법만 있다면 선교에 뛰어들고 싶다”고 응답한 성도가 30%나 됐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응답자 대부분이 실제로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응답(67%)이 많았다. 재정과 교육 부족(28%)도 원인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삶 속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교육이 와이미션(Why Mission?)이다.

7천명 수료, 최근 5년 계속 증가세

“선교는 무엇이며,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와이미션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 성도들 모두가 선교 자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비전이다.

와이미션 과정은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MC, 현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는 해외 비전교회 개척이 한창이었다. 중국 단둥, 미국 앨버틴, 보스턴, 호주 시드니 등 온누리해외비전교회가 속속 생기고 있었다. 그 흐름에 발맞춰 선교를 가르치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탄생한 과목이 바로 와이미션이다. 2009년부터는 와이미션이 2000선교본부로 옮겨지면서 또 한 번 도약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국내 캠퍼스는 물론 CGNTV, 두란노서원, 온누리해외비전교회, 타교회에서도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2010년부

터는 대학청년부에서도 와이미션 강의를 개설하고 청년들의 선교의식을 고취시켰다. 올해는 캄보디아 현지 교회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와이미션 1기’가 5월 4일부터 개강한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와이미션의 활약은 수료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와이미션을 수료한 성도가 무려 7,294명이나 된다. 8천 명 가까운 선교동역자를 배출해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와이미션을 수료한 성도가 3천5백여 명인데 최근 5년 동안 수료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와이미션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와이미션 과정은 선교에 대한 기초부터 실천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교를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배운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적 관점에서는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 한국 선교 역사를, 문화적 관점에서는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안산M센터도 방문한다. 실제적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나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이주민선교학교, 북한선교학교, 이슬람선교학교, 한국어선교학교 등의 스쿨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와이미션(Why Mission?) 수료현황

캠퍼스	본부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	평택	양지	해외비전	기타
수료인원	3,983명	497명	462명	234명	153명	175명	248명	45명	67명	891명	539명

간증

나는 4년 전 와이미션을 수강했다. 와이미션은 선교가 막막하기만 했던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 와이미션 강의 중에서 들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선교사님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것 또한 선교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나는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선교와 사랑에 빠졌다. 4년 동안 선교지에 40여 차례나 다녀왔다. 이 모든 것이 와이미션 과정을 수강하면서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3년 전 중국 아웃리치 때였다. 중국에서 1년 쯤 선교하고 있던 A선교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A선교사 사모님의 얼굴 빛이 매우 어두웠다. 그 사모님께 지금 가장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그렇게 마시고 싶다고 했다.

그 사모님은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돌보아 했기에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역은 오로지 남편 몫이었다. 사역으로 바쁜 남편은 늘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야 들어왔다. 공안의 감시 때문에 마음 놓고 어디를 다닐 수도 없었다. 꼼짝없이 일 년 동안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그때 우리팀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여겼다. A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스타벅스에도 갔다. 드디어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던 커피가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잔을 붙들고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이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그동안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없는 남편을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 사모님 말 한마디에 울음바다가 됐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을 세워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A선교사 부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나의 다음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국을 다녀오고 1년 뒤에 몽골 아웃리치를 갔다.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취소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몽골에서 만난 B선교사님 부부와 깊은 사귄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B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10년 동안 참 많은 아웃리치 팀이 왔는데 이렇게 우리 선교사 부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은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았다. 아마 내가 와이미션 과정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이 감동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조성수 팀장
(2000선교 아프리카 팀장, CHE팀 팀장)

특집_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을 찾아서 3

교회 하드웨어 개혁과 생활신앙 강조

스위스 개혁신앙가 ‘존 칼빈’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제자양육,
성동광진공동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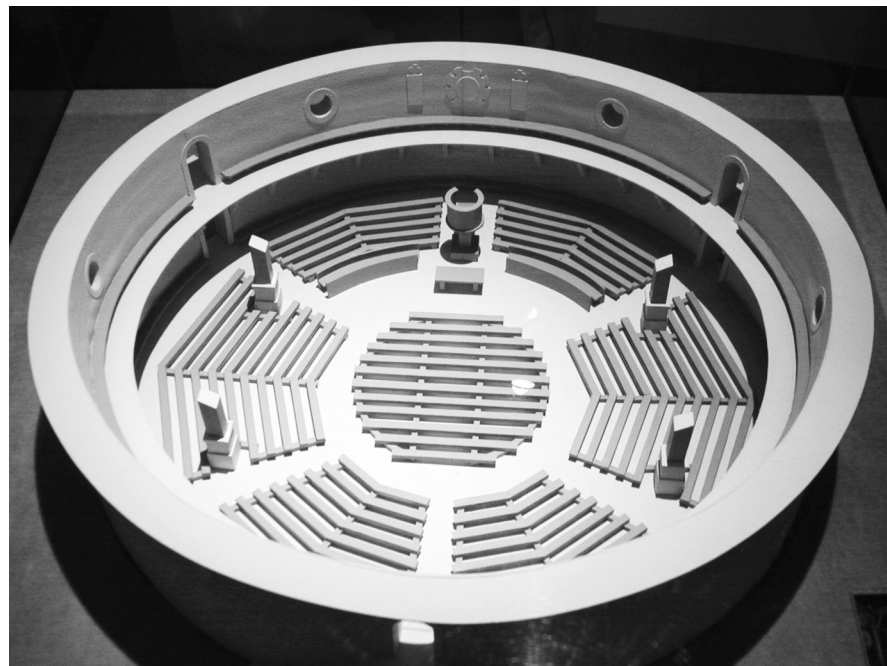
영국에서 안식
년을 보내고 있
을 때였다. 차를
몰고 가족과 함
께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 북
쪽에 있는 칼빈
의 고향인 노용

(Noyon)을 찾아
갔다. 칼빈 생가
에 들어서니 가
는 날이 장날이
라고 정기휴일이었다. 눈 내리는 날 운전해서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참으로 난감했다. 예수
님 말씀대로 문이 열릴 것을 믿으며 문을 두드
려 보았다. 한참 후에 사람이 나와서 정기휴일
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장로교 목사 가정이라고 소개하면서 관람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
는 어렵지 않게 관람을 허락했다. 예수님의 말
씀이 이루어졌다. 그날은 우리 네 식구만의 전
용 박물관이 되어서인지 감동이 더 컸다.

박물관 전시물 중에서 두 가지가 아직도 기
억에 남는다. 첫 번째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해 놓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
요>의 원본이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가슴 떨
리는 감동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영향력
은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초기 기독교에 끼쳤던 것보다 더 컸기 때
문이다. 두 번째는 칼빈이 꿈꿔왔던 예배당의
모형이었다. 그가 생각했던 예배당 모형은 가
톨릭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것이였다. 예배당은 계단식 원형이었고, 강단
은 둥근 원의 한 끝점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가
생각한 예배당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칼빈은 교회의 소프트웨어만 개혁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개혁
하려고 했었다.

기독교 신학 체계화시킨 개혁자

칼빈은 2세대 종교개혁자로 불린다. 마틴 루
터가 개혁운동의 개척자라면 칼빈은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킨 개혁자이다. 그는 루터 같
은 선배 개혁자들이 시작해 놓은 사역을 지속
시킬 뿐 아니라 완결하려고 노력했다. 루터는
이신칭의, 곧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체계화하였다면 칼빈은 성화론을 체계
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다. 그분의 주권은 구원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현된다고 했다.
여기에서 예정론이 나왔다(엡 1:4-5, 11). 그런
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
이 많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것
이다.



칼빈이 꿈꾸던 예배당 모형.

1509년 7월 10일 루터가 비텐베르크대학에
서 첫 강의를 마쳤을 때 칼빈이 태어났다. 그가
장성하여 대학 과정을 공부할 때 유럽 사회는
독일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신학논쟁이 많이
벌어졌다. 파리에서 대학 생활을 보낸 칼빈은
많은 신학논쟁에 참여하면서 위클리프, 후스,
루터의 신학사상을 잘 알게 되었다. 그는 사제
수업을 받던 중에 갑자기 회심하고, 성경과 종
교개혁에 몰입했다.

칼빈은 1528년에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
을 따라 법을 공부하다 부친이 소천한 후 다시
신학을 공부했다. 1534년 고향 노용으로 돌아
온 칼빈은 얼마 못 가서 프로테스탄트를 핍박
하는 왕 때문에 개신교화 되고 있던 스위스의
바젤로 거처를 옮겼다. 칼빈은 이곳에서 개신
교 신앙의 모든 것을 요약하여 출판할 것을 계
획하였다. 왜냐하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커서 혼란이 많았기 때
문이었다. 그 책 이름이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이다. 이 책은
칼빈이 27세 되던 1536년에 초판이 출판된 후
계속 업데이트 되다가 1560년 최종본이 출판
되었다. 4권 80장으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 시대에 쓰인 개신교 조직신학의 최
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 1권
은 창조주, 2권은 구속주 하나님, 3권은 그리스
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4권은 교회를 주제로
쓰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도시들은 시장
의 선택에 따라 가톨릭 지역이 되거나 개신교
지역이 되었다. 칼빈은 목회를 하는 것 보다 저
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은사라고 생각했다. 그
래서 개신교 활동이 자유로운 현재 프랑스 도
시 ‘스트라스부르’로 거처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스페인과 프랑스의 전쟁 때문에 교통

이 통제되는 바람에 제네바를 거쳐 가야 했다.
칼빈은 당시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
던 파렐(William Farel)의 강한 권고를 받고 그
곳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의 초대
를 받고 사역지를 옮겨 간 것과 같은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를 경건한 도시로 세워가길 원
했다. 그의 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개혁이
었다. 그는 신앙인은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
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개혁안은 지금 우리
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러한 그
의 개혁안 때문에 반대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시의회와도 충돌하였다. 그 결과 스트라스부
르로 추방되기도 했다.

설교와 성례전 그리고 기도

1541년 제네바로 귀환한 칼빈은 교회 조례
(Ecclesiastical Ordinances)를 제정하고, 제네
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과감
하게 시도했다. 그는 교회생활을 중요하게 여
겼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설
교와 성례전 그리고 기도라고 주장했다. 건강
한 교회의 표지는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
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되며, 교회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삶이 변할 수 있다면서 경건이 삶
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직
제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대로 목사
와 교사, 장로와 집사 등으로 세웠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 12명으로 구성된 당회를 조직하
고 교회를 운영했다. 이러한 조직이 지금도 한
국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다. 칼빈은 생활에서
분쟁과 비방을 금지시키고, 금전 사기와 절도
는 물론 화려한 복장과 사치 생활을 근절하려

고 했다. 모든 술집은 문을 닫게 했고 온갖 축
제는 폐지시켰다. 예배시간에 졸거나 세례식
때 하품을 하면 구속을 시켰다. 그의 생활개혁
안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의 개혁의 결실은 오늘날 제네바대학의 전
신인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진 것이었다. 칼
빈은 훌륭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평생소원이었다. 그의 바람대로
이 대학은 개혁교회 신학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항상 건강이 나빴다. 그 이유는 끊임없
는 연구와 사역으로 늘 잠이 부족했기 때문이
었다. 마침내 그는 170달러를 유산으로 남기고
55세를 일기로 1564년 5월 27일 세상을 떠났
다. 그러나 칼빈의 개혁신앙은 스위스는 물론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 장
로교단의 교회들도 칼빈의 신학사상을 기초로
신학과 신앙을 형성하였다.

제네바에 가면 두 곳을 꼭 방문하기를 권하
다. 한곳은 종교개혁 기념공원인 바스티옹 공
원(Parc des Bastions)이다. 이 공원 중앙에는
칼빈, 베자, 파렐, 녹스 등 4명의 종교개혁 운동
가들의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이 기념비는 가
로 100미터, 높이 10미터인데 칼빈 탄생 400주
년을 기념해 1917년에 세워졌다. 기념비 상부
에는 “어두움 뒤에 빛이 있으라(Post
Tenebras Lux)”는 의미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
다. 바로 옆에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
즉 제네바대학이 있다. 또 다른 곳은 성 베드로
(Jean Pierre)교회이다. 이 교회는 칼빈이 목회
했던 곳으로서 제네바 구 시가지 중심에 있다.
그곳엔 그가 설교했던 강단과 앉아서 강론했
던 의자가 보관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가톨릭교회와 다른 강단 구조를 하
고 있다. 가톨릭은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강단이 제단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
기 때문에 제단 대신 설교단이 높게 세워져 있
다. 그 위에서는 모든 회중을 내려다보면서 설
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다. 높
은 강단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강
조했던 칼빈의 정취가 느껴진다.

신앙개혁은 생활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
회가 많은 사회는 교인들 때문에 사회가 깨끗
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 사회정화
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
지만 신앙이 삶에서 실천되도록 성숙한 삶을
가르쳐야 한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
앙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생활을 요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인들의 순
결한 삶의 방법 때문에 우리 사회에 기초 질서
가 세워지고 정적이 보편화될 때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가 개막하면서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베이브 루스(Babe Ruth)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의 야구 선수 중 한 명이에요. 베이브 루스는 ‘밤비노의 전설’이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뉴욕 양키스에서 전설적인 타자로 활약했던 홈런 왕이었어요. ‘밤비노’는 이탈리아어로 ‘갓난아기’(Babe)라는 뜻으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타자 루스의 예명인 베이브를 빗대어 ‘밤비노’라고 한 것이지요.

당시 명문구단이었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루스의 자질을 과소평가해 험값으로 뉴욕 양키스에 트레이드시켰고, 이후 양키스는 루스의 폭발적인 홈런에 힘입어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구단으로 성장했어요. 2002년까지 월드시리즈에서 26회나 우승을 차지했어요.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는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이 일을 ‘밤비노의 저주’라고 한답니다.

야구팬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름 베이브 루스(Ruth)를 검색하다보면 함께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룻’(Ruth)이에요. 착한 며느리의 대명사가 되어 효(孝)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인이지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다가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어요. 룻은 자신의 동서인 오르바와 달리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축복을 받아 ‘보아스’라는 근사한 청년과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적 형식으로 룻기를 본다면 룻이 가장 서운해 할 거예요.

룻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단순히 ‘효도와 그것을 통한 축복’ 이야기가 아니라 온통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룻(Ruth)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그대로 책이 된 룻기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룻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기울어져있던 사사(士師)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사 17:6)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 없이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룻을 모델로 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살았던 시기였어요.

둘째,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어요. 나오미 가족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흉년은 전형적인 언약적 심판의 모습이에요(레 26:14~20). 그것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다니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역시 심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었죠(레 26:27~33).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것도 명확한 심판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

계는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데(사 54:5) 세 여자(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가 모두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여 남편이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셋째, 룻기의 마지막이 상당히 이상하게 끝나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룻기를 언뜻 보면 옛날 동화책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희한하게 ‘기-승-전-결’로 끝나요. 감동 있

게는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데(사 54:5) 세 여자(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가 모두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여 남편이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존속시키기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해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 주는 계대결혼(繼代結婚)이 핵심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전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무른다는 뜻은 ‘다시 찾아오다’(Redeem)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기업이며, ‘구원자(Redeemer)’라는 의미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는 말씀에 나오는 구속 하다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에요.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룻 3:9)라고 한 말과 보아스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룻 2:12)라는 말에 나오는 옷자락과 날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날개가 된 것은 고엘인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알팍한 도덕이나 신변 잡기 이야기를 교훈하는 정도의 책이 아니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보석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룻기를 다시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짐을 져주시는 아름다운 구속 사역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고엘 행위에 의탁할 때면 저주의 사사시대를 탈출할 수 있어요. 밤비노의 저주를 물고 온 베이브 루스만 검색하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알려준 여인 룻을 깊이 있게 사색해 보면 어떨까요?



박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는 이야기 끝에 어색하게 붙어있는 이 족보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룻기의 주제를 밝히기 위해서예요.

룻기는 시종일관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이 ‘지금은 사사시대’라고 말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다윗의 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넷째, 신데렐라에 나오는 왕자님 같은 보아스에 주목해야 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를

재미있는 성경 인물이야기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경희살롱의원 원장)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눅 1:36).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전해주면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관계임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초대교회 전승을 추적해 보는 것도 무척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스토리는 수십 년 동안 성지 이스라엘에 살면서 초대교회 전승

을 수집해온 신학자 바르길 픽스너의 책 <with Jesus in Jerusalem>에서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마리아는 주전 25년경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베데스다 언덕 근처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베데스다 언덕인데, 그 옆에 마리아가 태어난 장소로 여겨지는 웅장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바로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성안나교회’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엔케렘에 사는 엘리사벳의 큰 언니였다고 한다. 이 전승이 맞다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작은 이모가 되는 것이다.

바르길 픽스너가 제시하는 이후 스토리는 더욱 흥미롭다.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은 다윗 왕가의 왕족 출신으로 큰 양떼를 소유한 부자였다. 요아킴과 안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관계(?)

는데, 이 문제로 크게 근심하던 요아킴은 양떼를 이끌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 오랜 기간 은둔 생활을 했다. 광야에서 기도도 전념하던 요아킴은 아내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계시를 듣고 돌아왔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마리아였다고 한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요아킴의 은둔 생활과 이로 인해 태어난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성조지 수도원을 볼 수 있다.

한나와 엘가나 부부에게 태어난 사무엘처럼 안나와 요아킴은 태어난 딸 마리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마리아가 4세 되던 해에 성전에 바쳤다고 한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 대가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13세가 된 후에는 성전 근처에 살며 각종 휘장들을 만드는 바느질 봉사를 했다. 성전 내에 있는 각종 휘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새로운 휘장 만드는 일에는 경건한 여인들이 봉사했다. 마리아도 이 봉사에 참여한

것이다.

일생 동안 경건하게 살아온 마리아는 결혼할 나이가 될 즈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게 된다. 그 서원은 다름 아닌 성적인 금욕생활을 통해 순결을 지키겠다는 평생 순결서약이었다. 요아킴은 마리아의 순결서약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고, 딸의 순결서약을 지켜줄 남편을 다윗 가문에서 찾았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다.

바르길 픽스너가 제시한 마리아와 관련된 초대교회 전승은 물론 확실한 것은 없고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 측면에서 충분히 알아둘 내용이라 생각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일정: 7월 1일~8일
문의: 010-4902-1022

이번 주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26~28일 서빙고 본당 오전 10시

드디어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막 오른다. 26일부터 2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국제 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 에드 코리(Equipping hearts-Recovery Ministry 대표) 목사,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선택강의에서는 한마음정신회복예배, 프리덤스쿨, 회복소그룹 등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들을 소개한다.

개한다.

회복축제가 끝나면 곧장 회복 세미나가 이어진다. 4월 29일, 5월 1~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행사기간동안에는 탁아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유아를 동반한 참가자들은 자모실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행사기간 교회주차장 이용도 제한된다. 대중교통이나 셔틀을 이용해야 한다. 문의: 02-3215-3532, 3355



군선교팀 전도집회 개최

지난 16일 군선교팀이 흥천 11사단 신병교육대 사자교회와 양평 기갑부대 철마교회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 장병 40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나영욱 장로가 기도하고, 한화수 목사가 설교했다.

이날 설교에서 한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주셨다”면서 장병들을 응원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CCM 사역자 여성 듀오 에드(ADD) 공연과 군선교팀이 준비한 수제 햄버거가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월요어노인팅, 방글라데시 성령컨퍼런스

월요어노인팅 집회가 방글라데시에서 성령집회와 치유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성령컨퍼런스는 지난 19일부터 내일(24일)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8번의 집회를 진행했다. 현지 교회인 다카AG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진행을 돕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월요어노인팅 집회는 지난달 네팔과 인도에서도 성령컨퍼런스를 실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최된 인도 성령컨퍼런스에는 70여 교회 3,3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의료팀 ‘YAKKUM’ 방한

인도네시아 의료팀 ‘YAKKUM’ 관계자 30여 명이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온누리교회,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병원, 전주대, 전주예수병원, CGNIV, NGO 더멋진세상, TIM, 온누리M센터 등을 방문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융합선교팀, 의료선교팀 CNM과의 미팅도 이뤄진다.

YAKKUM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YAKKUM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의료계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선교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를 소원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해외 단기사역자 모집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에서 5월 2일까지 해외 단기사역자를 모집한다. 1~2년 동안 세네갈, 르완다,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제빵, 축산, 유·초등학교 교사,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외 단기사역자 지원자는 Acts29 비전빌리지, NGO 더멋진세상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7월 중에 파견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도로 해외봉사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http://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ojm@abetterworld.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오정민 02-2271-2246

‘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학자금 대출, 실직이나 실업, 생계비 조달, 과소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장년들을 도와주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외부 재정상담 전문가와 협력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기상담 및 응급조치, 부채문제 정밀진단 및 해결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실행지원 및 사후관리상담 등을 해주고 있다.

부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50세 이하(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온누리교회 청장년 성도가 대상이다. 부채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를 추천해도 된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까지 온라인(<http://sjmonnuri.org/loving-u-deb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debt119@naver.com)이나 팩스(0504-365-3353)로 보내면 된다.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개최

지난 15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이 일산호수요양병원에서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를 개최했다. ‘연합의 비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만남의 잔치팀, 오전 교육팀, 오후 교육팀 등 새가족 사역자 83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련회는 찬양, 기도, 노치형 목사의 특강, 강미향 목사의 메시지, 이민욱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노치형 목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바르게 사용하며, 목표가 같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강미향 목사는 “연합의 비밀은 나와 하나님, 이웃 사이의 막힌 담이 풀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새가족 사역자들이 연합의 비밀을 이루어갈 때 새가족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세례자

정성우 930817
이지수 900912
박준홍 900430

유아
서여울 150430
서원호 최윤희

‘러브소나타 도쿄’ 참가자 모집

7월 25~26일 도쿄국제포럼

7월 25~26일 도쿄국제포럼에서 막 오르는 ‘러브소나타 도쿄’ 참가자를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서빙고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 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도쿄 현지 실행위원회는 벌써부터 집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20일 7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합

동기도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46개 교회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력교회 300개가 목표다. 올해는 러브소나타 10주년이다. 2007년 3월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최복단 핫카이도까지 일본 열도를 돌면서 25차례나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러브소나타 도쿄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 7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적이 있다. 당시 20,691명(일본 참가자 15,684명, 한국 참가자 5,007명)이 참석하고, 339명이 결신했었다.

문의: 02-749-1149



5월 7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중앙대학교병원과 함께 헌혈행사도 실시

5월 7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주민들을 배려하고, 환경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헌혈행사도 병행돼 더욱 뜻 깊다. 헌혈행사는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 공터(구 골프연습장)에서 실시된다.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성도가 대상이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헌혈하면 봉사시간 4시간이 인정

되며, 헌혈증 및 기념품이 주어진다.

이날은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성도들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5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 양제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다. 교회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도 안 된다.

문의: 02-3215-3434, 3436



기 · 도 · 제 · 목

- 4월 24일(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일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 4월 25일(화) 실행위원들이 연합하고 일치되고, 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기를
- 4월 26일(수) 전도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결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 4월 27일(목) 이재훈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구령의 열정을 부여주시길
- 4월 28일(금) 스태프들이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 사역할 수 있도록
- 4월 29일(토) 행사장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 4월 30일(주일)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원, 소영주 선교사(남아시아M국)

남아시아M국에 어느새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올 봄에는 기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우선 수도를 떠나 K도시에 정착했다. 환경도, 사역도,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새롭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역지를 옮겼다. 참 감사한 것은 세 아이들이 K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마냥 좋아한다는 것이다. 남아시아M국에 처음 올 때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신나했던 것처럼 말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은 항상 행복하고 평온하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사역지를 옮긴 지난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람을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지켜 주시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

가장 큰 상급

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선교를 하며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가장 큰 상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상급인지 알게 되었다. 수도에서 언어 적응기간을 잘 마치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주신 것과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린다.

5명의 대학청년부 FA선교사들과 우리 가정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센터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와 물질을 통해 협력하시는 동역자님들께 주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한다.

■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1기 수료 간증



/ 김기훈 성도(분당A공동체)

깨닫고, 회복되고, 행복하기

아내의 권유로 아들과 함께 청소년·부모 성장학교에 참가했다. 억지로 강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낀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많다. 나와 아내의 사이가 좋으면 아들과 딸도 바뀐다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행통하게 된다는 강의도 기억이 많이 남는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게 되었다. 내 대에서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리라 믿는다. 아내가 중1인 아들과 많이 다투었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독립하려는 의지로 반항하는 것이었다. 깊이 공감 되었다.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변해서 아내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아내와 아들과

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조차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를 변화시키셔서 20여 년 전 연애할 때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실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아들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내심 기쁘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회사 일을 통해 더욱 깊이 체험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크리스천인 회사 사장님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계약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변화될 나의 삶이 기대된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강의를 준비하신 목사님, 팀장님, 스태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청소년·부모 성장학교를 통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한다.

문의: 이정석 팀장 010-6637-7540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이렇게 진행됩니다

알려드립니다

-행사장 내, 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3층 본당입니다.

-오전과 점심, 저녁시간에는 리허설 관계로 본당 출입이 통제됩니다.

(집회 20분 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개인물품을 휴대하고,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등록할 때 받은 명찰을 항상 착용해주시고, 미착용하면 출입이 통제됩니다.

▶등록

-등록할 때 명찰과 교재를 드립니다.

-당일 등록 가능합니다(회비: 5만원, 축제 참가자는 세미나 3만원).

▶식사

-행사 중에는 점심만 제공됩니다

(저녁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차

-새벽기도회 이후 주차가 제한됩니다. 축제와 29일(토)세미나 중에는 개인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세미나에서는 셔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촌역(-)교회 셔틀 운행(시간 내 연속 운영)

장소: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탑승

시간: 오전 9:00-10:30

오후 3:00-4:00

오후 6:30-7:30

▶자모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자모실을 이용하면 됩니다(탁아실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실

-회복축제본부(선교관 1층 Ascts29홀)에서 간단한 구급약을 지급합니다.

-지병 및 치료 중에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스 및 상담부스

-이천만광장 CGNTV 홍보관에서 온누리 회복 사역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됩니다.

-이천만광장에서 상담접수 후 전문상담가에게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회복축제본부(02-3215-3355, 3532)

강사소개



〈에드 코리 목사〉
-Equipping Hearts Recovery Ministry 대표
-국제 YWAM 주강사
-회복사역 전문가



〈박성심 사모〉
-결혼과 가족상담가
-심리치료사
-회복사역 전문가

〈회복축제 일정〉

시간	4/26(수)	4/27(목)	4/28(금)
10:00~12:00	강의1 기쁨과 평강으로 향하는 문 박성심 사모	강의3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은혜 에드 코리 목사	강의5 은혜와 두려움 에드 코리 목사
12:00~13:20	점심시간		
13:20~15:00	강의2 회복으로의 초대 에드 코리 목사	토크쇼 강의4 평강을 회복하는 길 박성심 사모	강의6 상처있는 기억으로부터 기쁨과 평화로 회복되는 길 박성심 사모
15:30~17:00	선택강의		
17:00~19:00	저녁식사		
19:00~21:30	집회1 기쁨을 증거시키는 길 박성심 사모	집회2 뇌를 변화시키는 은혜 에드 코리 목사	집회3 기쁨과 평강을 확장하는 길 박성심 사모

〈회복세미나 일정〉

시간	4/29(토)	5/1(월)	5/2(화)
강사	박성심 사모	에드 코리 목사	에드 코리 목사
10:00~12:00	강의1 임마누엘과 함께 잠잠하기	강의1 회복사역 리더십의 성경적 기초	강의1 은혜에 기초한 리더십의 필수요소 1
12:00~13:00	점심시간		
13:00~14:30	강의2 임마누엘과 함께 감사하기	강의2 당신은 은혜로 이끄는 리더십인가 두려움으로 이끄는 리더십인가?	강의2 은혜에 기초한 리더십의 필수요소 2
14:30~14:50	휴식		
14:50~16:30	강의3 임마누엘과 생각맞추기 및 공유하기	강의3 리더십의 상호의존성	강의3 은혜에 기초한 리더십의 필수요소 3

장로칼럼

부르심



박해한 장로
(분당A공동체)

“원장님, 원장님!!”

다급하게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쫓아 나갔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외과 의사가 되어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이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 애양원 근처에 ‘온누리의원’을 개원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일찍이 우리 가정의 모토였기에 주의 부르심을 입어 경상도 태생인 우리 가정이 연고도 없는 전라도 땅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내 동생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났고 아픈 동생을 보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고3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후 기도원에서 하나님은 내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의술을”이라는 뜨거운 기도제목을 주셨기에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외과의사가 되었다.

우리 집안은 경상북도 경주에 살았다. 친가와 외가 모두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에 일가친척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내 아내 정 권사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을 정도로 믿음이 확실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일가친척 본토 아버 집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

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전라도 여수 읍촌 땅으로 가게 되었다. 병약하고 외로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 진료한 지가 어느새 십 년이 넘었다. 여수 읍촌은 일찍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역이다. 나는 지금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더불어 그분들께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우리 부부의 모습 덕분이었을까. 어르신들의 태도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지셨다. 지금은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시며 “경상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지않~”하시며 웃어 주신다. 어린 시절 무뚝뚝한 경상도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그분들의 인정 넘치는 언행과 사랑에 우리 내외는 도리어 큰 감동을 받는다.

더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병원에 찾아 오셨던 많은 분들이 아픔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매주 어김없이 교회에서 말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처가 식구들이 애처로워 한다. “이제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 올 때도 되지 않았냐”고 질문한다. 그때마다 나는 “다른 곳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올라오지요. 그리고 십 년 전에 만나 한 식구나 다름없는 어르신들 모두 돌아가시면 올라오겠습니다”라고 주저 없이 답한다.

오늘도 난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하여 인근 야산에 올라 조용히 주를 바라본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권사칼럼

이웃을 내 몸같이...



한성자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물다음’이라는 사역팀을 만들어 긍휼사역을 시작했다. 요양원과 고아원을 찾아가 섬겼다. 물다음이라는 이름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자가 되자는 의미이다. 가장 먼저 요양원을 찾아갔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계셨다. 어르신 몇 분은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원망이 가득했다. 그 원망 때문에 말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몸을 가눌 수 없던 55세 여성의 마음과 말문을 열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

우리가 갈 때마다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며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던 분이였다. 그분께 정성들여 발을 씻어 드리고 눈을 맞췄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시지도 해주었다. 어느 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때 얼마나 놀라고 기뻐는지 모른다. 사랑고백을 받은 것 같이 행복했다. 마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어느 요양원을 가든지 세족식은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단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재활을 돕기 위해 팔찌 만들기, 예수님 색칠공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교제했다. 만신을 모셨던 할머니도 계셨다. 처음에는 예배참석을 거부하셨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고백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2013년부터는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도 찾아갔다. 그 때부터 반찬봉사를 시작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조리팀과 배달팀으로 나누어 봉사하고 있다. 반찬을 배달할 때마다 고맙다고 하겠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곧 터질 것처럼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과 세상이 원망의 대상이었다. 복음을 전하면 완강히 거부하며 역정부부터 내시던 분이 계셨다. 그분을 5년이 넘게 전도했다.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찾아 가냐”며 스스로 나와 예배를 드리셨다. 6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를 많이 기다리신다. 우리가 보고 싶었다고 고백도 하신다. 가정사며 자녀들의 이야기도 털어 놓으시고 중요한 일은 의논도 하신다.

우리 팀원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다. 소외된 곳을 찾아가 그분들과 눈맞추며,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억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며 자격이 있다면 오직 사랑할 자격 밖에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오는 날은 기운이 난다. 그분들을 또 만나고 싶어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 사역에 함께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문의: 010-2034-9658

신앙에세이

지식, 동기, 저항 vs 태도, 신앙, 사랑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일본어예배부 담당)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다.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소개하기 위해 핫카이도 지역을 갔을 때 들은 말이다.

“그것이 좋은 훈련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소개한 내게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다. 그 말에는 분명 러브소나타 집회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은혜 받

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절망으로 바뀐다.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동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방해하는 저항도 반드시 발생한다. 나는 변화의 관점에서 지식, 동기, 저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일본의 역사에서 복음을 받아 들인 배경에는 강대국에 대한 동경과 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화한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에서도 마찬가지다. 에도 막부시대 당시 가톨릭 선교사 박해는 서양의 힘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의 진실이나 문화에는 의미가 없고 우리만이 옳다”는 태도였다. ‘후미에(성화를 짓밟는 것)’로 그들의 오만함을 깨트리려는 것이었다. 이 영화는 역사상 승자만 기억하는 지금 세대에 경종을 울리는 듯하다.

일본은 ‘지진, 천둥, 화재, 아버지’를 두려워

하는 문화가 있다. 이 때문에 권위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보다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을 들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교회들은 자신감과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이것 또한 권위적인 태도로 복음이 전파돼서가 아닐까. 일본 선교에 대한 지식은 깊어졌지만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 무엇을 전할지보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다.

둘째,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부정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Input(받아드리는 것)’과 ‘Output(행동하는 것)’이 있다. 변화를 경험하면 진정한 믿음이 된다. 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을 부정한다. 그것을 깨트리는 법은 믿음 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흥해를 건넌 믿음의 흔적을 바라봐야 한다. 믿음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바다를 건너지는 개개인의 신앙이야말로 일본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영적 사슬을 깨뜨리는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본에 전할 수 있는 힘이다.

셋째, 저항 즉 두려움은 사랑으로 해결된다. 그동안 러브소나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선교는 지역 교회에 격려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엡 1:10).

일본과 한국은 함께 하기 어려운 파트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서로의 사랑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차게 전파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26절).

그들은 정치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였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 받는 메시아요,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죄인들처럼 처참하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취급 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슬픔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슬픔을 분석해 보면 절망, 불신,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왜 슬프니까. 죽음에 얽혀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로만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상에 속한 슬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슬픔에 사로잡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볼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27절).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님의 말씀 풀어주심에 이끌려 길을 가던 중에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30~31절).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빵을 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빵을 떼는 습관이 과거 예수님과 동일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32절).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이 사라지고 무지가 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고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무지와 불신과 절망과 슬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한 것입니다. 눈을 열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야 눈이 열

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살아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실 때 “내가 부활했다. 나를 알아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 스스로 눈이 열려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설명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때는 식사할 때였습니다. 어떤 성례전을 거창하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그 소박하고 조촐한 식사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슬픈 순간들, 절망적인 순간들, 낙심과 불안과 불신과 무지 속에 사로잡히는 모든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이 살아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슬픔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통일 이후 의식(意識) 문제

북한은 나의 또 다른 고향이다. 우리 부모님은 함경북도 출신이다. 아버님은 해방되기 전에 남한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다. 내가 한 살 무렵 6.25전쟁이 발발했다. 부모님의 품에 안겨 피난을 갔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손가락이 썩어 들어 갈까봐 상처를 불로 지졌다.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렸을 때부터 통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라왔다. 최근 들어서는 정말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통일의 문제점 때문에 당장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남한과 북한은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 있다. 불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일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의료지도자협의회라는 NGO 활동을 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체력이 달리면 코치나 감독을 하듯이 정년이 지난 의사들이 모여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NGO다.

처음 의료지도자협의회를 계획할 때 통일부 소속 단체로 만들려고 했다. 국내외에 의사들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북한만큼 절실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정과 탈북자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12주 동안 생활하는 하나재단 사람들과 미팅을 자주 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탈북자들은 낮은 체력과 남한 사람들의 차별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체력이 부족해 무엇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몸이 아파도 체력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이들도 있다. 체력이야 좋은 음식 먹고 폭 쉬면 회복할 수 있지만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몸이 아프고 배를 굶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다.

나도 의료현장에서 이런 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다.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다(多)인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한 환자가 항의를 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이북 사투리를 쓴 모양

이었다. 항의를 한 환자는 “내가 왜 저 사람과 한 방을 써야 하나”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자신은 1등 시민이고,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2등 시민이라는 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다. 북한 동포들에게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도 갈라져 ‘네 편 내 편’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계속된다면 통일 이후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한국에서 의사 면허시험을 본 뒤 수련의 과정을 하고 있는 탈북자를 만났다. 이식을 잘 배워서 북한에서 신장이식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것이 통일 이후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통일 이후 전문성을 발휘하면 의료,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차별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덜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3만여 명의 탈북자가 있다. 그들을 잘 품어야 한다.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탈북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사회적 괴리감, 차별과 편견을 가장 힘들어 한다. 태어나보니 북한이었을 뿐이다. 남한 사람들이라고 선택된 백성도 아니다.

나는 통일이 되면 이북에서 신장이식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하루 빨리 그 꿈을 이루고 싶다. 나는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한덕중 장로
(송파공동체)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제115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기간: 4월 22일~5월 14일 총 4주

등록: 수시접수, 선착순 247명정(인터넷접수
www.onnurifamily.com)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일시: 5월13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콘서트홀

접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anam73@onnuri.org로 발송
문의: 남승도 간사(02-3215-3216)

19기 치유사역자스쿨

기간: 5/11~7/13 매주(목)

시간: 매주 목 오후 7시~10시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콘서트홀

접수: 온누리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의: 010-7388-9900

창조과학 국내탐사 모집

대상: 교회 성도 및 공동체, 가족

일시: 5월 13일~14일(1박2일)

장소: 여수 송양원목사 순교기념관, 고성
공룡박물관 외 (교회집결)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3869-7785)

CMN Bee팀 여름국내사역 안내

일시: 8월 24일~27일

장소: 제주도

대상: 의료 및 미용사역에 관심 있는 분

문의: 김선아 (010-6773-2136)

CMN 드림팀 여름아웃리치

일정: 인도네시아 8월 12일~17일(140만원)
스리랑카 8월 12일~18일(160만원)

모집: 의사, 약사, 간호사, 미용사등

문의: 우승엽(010-4230-1474)

중국어 개인교습 모집

강사: 중국어능력평가 고급

대상: 중국어 개인교습 받을 성도, 학생

문의: 한터 02-3463-9686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배: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방: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8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의료선교부(CMN) 해외 여름 아웃

리치 모집

일정: 7월 8일~17일

지역: 아프리카 케냐

모집: 치과과, 소아과

회비: 담당자 문의

문의: 오천병 간사(010-5257-4566)

아버지양육자반(양재1기)

일정: 5월 14일, 21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강의동 302호

회비: 15,000원(교재+CD) 현장납부

자격: 초등학교 2년 아버지(기본원칙)

로서 양육자반 수료 이상

문의: 02-570-7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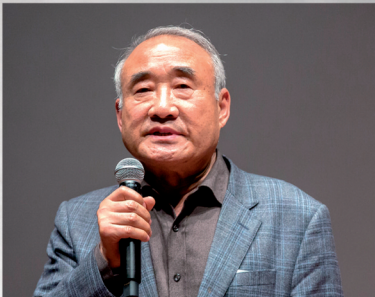
부천

032.322.9686

서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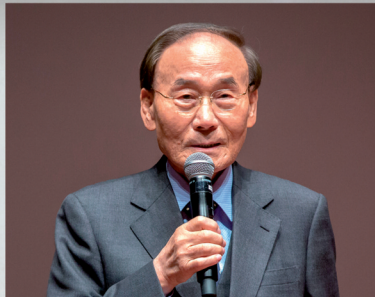
천천히
평온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는 것으로는 끝낼 수 없는 영화입니다”
“너무 감동해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홍정길 원로목사 (남서울은혜교회)

이 영화가 우리를 진정한 삶의 모델로 인도하는 이정표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위한 실재를 보기 위해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박종순 원로목사 (충신교회)

이 영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동원 원로목사 (지구촌교회)

우리가 느껴야 할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 기력이 있다면 소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송인 **이성미**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해준 이 영화가 극장에서 며칠 동안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365일, 나아가 10년, 20년 계속 상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저희 부부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모습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을 바꿀 수 있는 한편의 영화입니다.



최윤영 아나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모델이 되어줄 영화입니다.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배우 **김현숙**

빠르게만 흘러가는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VOS 박지현**

같이 나눠야 할 이야기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다큐영화 서서평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4월 26일 전국 대개봉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서울극장 상영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제작 **CGNTV**

